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9월 1일(금)
--(음력 7월 17일)--
Пятница
1 сентября 2023 г.
№ 34 (1205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1일은 지식의 날이다. 러시아의 모든 학교와 대학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지식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은 교사와 학생, 대학생, 학부모와 새학기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날입니다. 이날은 꽃들과 기쁨의 미소와 축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설레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양질의 교육은 사할린과 쿠릴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증하며, 사할린 지역의 발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조국의 독립과 주권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고, 보충교육 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어린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기에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로 진출하는 그들의 입장을 개선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 성공에 이르도록 합니다.

9월 1일, 이 멋진 날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를 맞아 모든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성공을, 부모님들께는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러워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식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9월 3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로 기념

9월 3일은 사할린 전 지역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일본에 장악됐던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일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9월 3일(일) 오전 10시에 영광의 광장에서 기념 행진과 불멸의 성화에 헌화식이 진행된다. 전통적으로 기념행사에는 정부 대표자들과 성직자, 장병, 참전용사들, 시민들이 참석해 불멸의 성화단에 헌화한다.

사할린주 문화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날(9월 3일)에 일련의 기념 및 축하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종합 기념박물관과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기념박물관에서 <해방>을 주제로 문화적, 대중적 행사를 개최하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수호한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행사를 통해 사할린 주민들에게 9월 3일을 군사적 영광의 날인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의 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상기시키며, 역사적 기억 보존의 가치와 특수군사작전의 필연성과 중요성, 러시아 국민의 단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라고 행사 주최 측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 광장에서는 저녁 8시에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여 동부 군사구 26 부대 군악대(하바롭스크)의 음악 공연이 열린다. 밤 10시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생방송으로 60개의 질의에 답해

8월 30일(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OTB-사할린' TV 채널과 소셜 네트워크를 직통으로 연결해 2시간 동안 60개 질의에 상세히 답했다. 총 700 건이 문의된 가운데 모든 문의는 10일 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주제들은 새학기 시작, 도로 보수공사 및 건설, 교통 편의,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의료서비스의 질과 편리한 이용을 비롯해 상당히 질의가 많았던 부문은 주택 공공사업 부문으로 식수 품질, 가스화, 난방시준과 주거 정비작업에 관한 것이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새로운 5개 학교들이 새학기를 맞는다고 밝히고, 1,335명이 수업할 공간이 마련되며, 고학년의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사가 직업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104 학교들에서는 사할린과 쿠릴의 청소년들이 드론 조종과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된다.

마카로브 구역의 주민들은 가을에 노후주택으로부터 노위에 마을의 3칸방 아파트 7체에 입주하게 된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올초부터 사할린과 쿠릴 주민 1,900명이 새로운 집으로 입주했다. 올 연말까지는 2,500명의 주민이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7면에 계속)

단신

돈바스에서 복무하는 사할린 장병들에게 국가 메달 수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도네츠크 사흐초르스크를 방문하면서 복무 중인 사할린 장병들을 만났다. 주지사는 사할린의 장병 30명에게 국가 메달을 수여하고, 사할린에서 제작한 무인기 10대를 전달했다. 또한 체호브 센터의 배우들과 사할린주 필하모니가 공연 프로그램을 펼친 가운데 사할린의 창작 예술단이 조성한 공연은 장병들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며,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하고, 승전을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투를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군사령부와 상호협력하여 전장에서 필요로 요청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치료를 위해 사할린 민간인 및 재활센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를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주지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사할린의 전문가들이 복구에 도움을 줄 일련의 사회적 시설들을 방문해 사할린에서 사회활동가들이 수집된 선물세트도 전달했다.

러시아 사회재단 사할린 지부와 사할린주 정부 간 긴밀한 상호협력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러시아 사회재단의 신임 사할린 지부장이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차관을 지낸 마리나 아굴리올리나가 새로운 지부장이 됐다. 연방기관의 새 지부장과 주사회보호부와 공동 업무는 특별자들에게 재활기구 보급 절차를 받도록 하고, 11월 1일까지 순조롭게 이들에게 장비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외과 종양학 마스터클래스 열려

사할린주의 전문의들이 모스크바 전문의와 함께 전립선 종양 제거에 따른, 신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절개 없이 작은 천공을 통해 수술을 하는, 최소침습수술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 의료생물학청의 연방 과학의료센터 비노기과 과장인 안드레이 산자로브 의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아왔다.

이들간 실용과학 콘퍼런스가 주 종양치료소에서 열린 가운데 프로그램의 강의 부분에서는 합병증을 제거하고, 환자의 재활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대적 복강경 수술에 대한 논문 발표와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방문한 전문의의 지도 아래 두 건의 긴급수술이 있었고 수술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회의실에서 지역 의료진들이 관찰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9월 3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9월 3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1945년)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8년 전에 역사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독일 나치의 마지막 동맹국이었던 일본 군국주의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러시아에게로 돌아왔고, 이 사건으로 현재 경계의 사할린주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극동의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로 기념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의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명절의 이름을 다시 되돌리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동 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참전용사들과 전쟁 후 사할린에서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오늘날 변영의 토대를 닦아놓으신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과 같이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과 변영 속에 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영토를 해방시킨 분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금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조국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행복과 새로운 성공을 기원합니다!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날(1945년)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동방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극동의 거리> 전람회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개발 전망 발표

<극동의 거리> 전람회에서 사할린주는 지역의 대규모 기회와 관광의 기회, 투자 분야의 특혜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전람회는 9월 10일(일) - 17일(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제 8차 동방 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2023 동방 경제 포럼은 로스콘그레스 재단이 주최한다.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투르트네브는 "투자유치는 모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이 된다. 사할린주는 투자유치에 있어 선두 지역 중 한 곳으로 국내 투자환경 상태 평가에서 4위에 올랐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더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의 공항터미널은 현대화되었으며, 새로운 승객 터미널이 건설되었다. 사할린과 쿠릴에는 새로운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고, '고르니 워즈두흐'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스키 리조트 중 하나로 꼽힌다.

<극동의 거리> 전람회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역들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전시회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게 하고, 자신의 눈으로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며, 각 지역의 특별한 매력들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사할린 전람회의 핵심 주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새로운 도시, 새로운 여행, 새로운 발견!>이다. 사할린 전시 코너에는 주로 돛단배와 고래 모양의 풍선으로 장식됐고 이와 함께 옆 부스에 가리비 조개 모양의 투자자 코너가 있다. 전시 코너 주변은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들의 모형들이 장식돼 있다. 그리고 해가 진 후에는 모든 물체들이 조명등으로 빛난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공존하면서 건설과 산업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은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행하기에 우수한 장소라고 본다. 우리는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들과 사할린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고급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들에게 우리 사할린주의 우수성을 명쾌히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은 자랑할 것과 전국에 알릴 만한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람회의 주요 역할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개발 기획에 주목하게 했다. 이 개념은 2030년까지 건설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자금 유치 비용으로 남 사할린에 현대적인 도시환



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곳에 새로운 사업 발상의 실현과 교육, 전문적인 성장,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기회들이 자연과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할린주는 석유·가스 서비스, 물류, 수산물 가공, 관광,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련의 전략적인 기획들을 발표한다.

2023년에 사할린주는 기업인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 지역들의 투자유치에 따른 전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투자기획 지원정책의 발달된 시스템은 사할린주 경제의 역동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할린에는 3개의 사회-경제개발 선도지역이 조성되었으며, 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쿠릴열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20년간 소득세, 재산세, 교통 및 토지세도 면제된다. 또한 쿠릴열도 전 지역에 관세 면제 정책이 확산되었다. 한편 지역 정부는 하나의 창구를 원칙으로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장비 구입과 생산공장 건설 비용의 일부 환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지원책의 광범위한 목록을 구성했다. 사할린주 전람회 제작자들은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의 대형 기업 부스에서 '사할린스카야 에네르지야(사할린 에너지)' 석유가스 회사, '오로라' 항공사를 소개하고, 특별 산업시설 방문을 포함한 새로운 관광 코스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극동의 거리> 전람회는 극동 연방관구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 기구의 지원으로 로스콘그레스 재단이 주최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열린 제7회 <아이론사흐 (IronSakh)>, 전국 각지에서 200명 이상 참가

8월 28일, 제 7회 '아이론사흐(IronSakh)' 사할린 철인 3종 경기가 '레스노예 오제로' 건강회복센터를 거점으로 진행된 가운데 러시아 37개 도시들에서 온 철인 3종 경기 참가자들은 215명이라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선수들은 슈퍼 스프린트(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km, 달리기2km), 스프린트(수영750m, 자전거 경주 20km, 달리기 5km), <올림픽스카야> (수영 1.5km, 자전거 경주 40km, 달리기10km), 하프 (수영 1.930km, 자전거 경주 90km, 달리기 21.1 km), 슈퍼스프린트 (장애인) (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 km, 달리기 2km) 등 5개 종목에서 속도와 지구력을 겨뤘다.

"철인 경기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코스를 통과한 기쁨과 미소를 보게 되어 기쁘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슈퍼컵 총결산을 발표하게 된다. 초여름 무렵 스포츠 클럽과 팀들은 경기에서 경쟁을 시작했다. 연해주에서 3단계가 진행됐고, 마지막 4단계가 '아이론사흐(IronSakh)'이다."라고 연해주 철인 3종 및 다종 경기 연맹회 실장 제니스 이와뉴크가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 슈퍼컵 전 단계의 총결과로 '아이론웨이 (IronWay, 우스리스크)'팀이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퍼시픽 팀 오브 리그 트라이애슬론(Asian Pacific team of league triathlon(APTLT), 유즈노사할린스크)'팀이 2위를 차지, '아이론팀' 클럽(Iron Team CLUB, 블라디보스토크)이 3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개인전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의 이름이 발표됐다. 수상자들은 올해 10월 소치에서 열리는 <아이론스

타(IRONSTAR)> 스포츠 축제에 지역 대표로 출전하여 경기를 치른다.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Росси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IronSakh vol.7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триатлон IronSakh vol.7 прошел на баз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Лесное озеро». Участник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215 триатлетов из 37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тлет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скорость и выносливость в пяти дисциплинах – супер-спринт (плавание 300 м, велогонка 8 км, бег 2 км), спринт (750 м, 20 км, 5 км), «Олимпийская» (1,5 км, 40 км, 10 км), HALF (1930 м, 90 км, 21,1 км) и супер-спринт (для лиц с ПОДА) (300 м, 8 км, 2 км).

«Рад видеть на лицах участников триатлона улыбки и радость от пройденных дистанций. Сегодня мы подведем итоги общего заче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Суперкубка. Борьбу за него начали спортивные клубы и команды еще в начал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Три этапа проходили у нас в Приморье, четвертый,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 это IronSakh», — 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едерации триатлона и полиатл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енис Иванюк.

По итогам всех этапов Суперкубка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и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IronWay (Уссурийск), второе место у командой Asian Pacific team of league triathlon (APTLT)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Iron Team CLUB (Владивосток) стал третьим.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были названы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в личном зачёте. Именно они будут защищать свой регион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а фестивале спорта IRONSTAR,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очи.

<2023 - 문학 디딤> 국제 행사에 사할린 합류

<2023- 문학 디딤(단답 시험)>국제 계몽활동이 9월 23

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은 주 일반 과학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측이 알렸다.

딤탄트 참가자들에게는 고전 및 현대 러시아 문학에 대한 20 문항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올해는 딤탄트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다.

<문학 디딤>가 실시될 행사장들은 9월15일에 딤탄트 활동 사이트의 '기획 실시 지역' 항목에서 발표되며 참가자들과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증명서를 수여한다. 딤탄트 진행 시간표는 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추후 알릴 예정이다.

Сахалин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Литературный диктант — 2023»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акция «Литературный диктант — 2023» пройдет 23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ощадкой для ее проведения станет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Участникам акции предложат 20 вопросов о классическ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Перечень площадок «Литературного диктант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15 сентября на .рф/сайте акции в разделе «География проекта». Участникам и победителям акции будут вруч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и дипломы. О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диктанта СахОУНБ проинформиру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네벨스코이 제독 210주년 기념 전시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러시아 겐나지 네벨스코이 탄생 210주년 기념 <행복의 만>이라는 기획 전시회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는 9월 6일(수)부터 아동미술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사할린 미술 박물관 측이 전했다.

(8면에 계속)

홈스크시, <한 가정에서>민족 간 축제 열려

지난 8월 26일(토) 사할린의 항구도시인 홈스크에서 제6회 <한 가정에서>민족 간 축제가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홈스크 지역 행정부의 협력으로 진행되어 여러 민족 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었다.

올해 '한 가정에서'축제는 이미 우글레고르스크와 아나와에서 도 진행되었고, 홈스크는 마지막 지역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홈스크 시장 드미트리 류브치노브는 "한 가정에서'축제는 이미 홈스크에서 좋은 전통이 되었다."며 "사할린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축제 목표다.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하는 사할린주 한인 협회를 비롯해 '바이칼의 동향인'부랴트인협회와 홈스크 한인회의 장 알렉산드르 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할린 주두마 아르쎌프 쿠르글리크 의원, 사할린주한인협회 이세르게이 부회장, '바이칼의 동향인'부랴트인협회 울가 프렌도르 지예와 회장, 홈스크 한인 회장 알렉산드르가 방문객들에게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민족문화 및 스포츠 발전에 공로를 한 분들에게 홈스크 시행정부와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홈스크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부랴트, 한민족 문화가 소개되었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에는 민속합창단 '루스카야 페스나(러시아 노래)', 아나스타시야 세료기나 가수,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미니말'사물놀이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희망'과 '아리랑' 무용단, 그리고 최 율리아 동포가수 등이 출연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토르나도'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들의 시범으로 멋진 볼거리를 제공했다.

사할린 국립대 언문, 역사 및 동양학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을 열어 시민들에게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한인회 측에서는 뽕재(왕만두)와 부침개 요리교실을 진행했는데 시식해본 사람들 모두 너무 맛있다는 평을 한 가운데 모든 활동교실들마다 인기가 많았다.

맑은 날씨에 명절 분위기를 안겨주는 축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민주평통 21기 해외 간부위원 명단 발표

부의장 4명, 직능운영위원 7명, 협의회장 45명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지역 간부위원이 확정됐다.

8월 28일 민주평통 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제21기 해외 간부위원은 부의장 4명, 직능운영위원 7명, 협의회장 45명 등이다.

해외 부의장은 일본 부의장에 손영태 (썬ATOZ 대표이사, 아시아·태평양 부의장에 고상구 K&K 글로벌트레이딩 회장, 미주 부의장에 강일한 CRESCITA APPAREL 그룹 대표회장,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에 고광희 Korea LED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해외 직능운영위원으로는 김명혜 KCR Development 대표이사(미국), 김영길 Bethel Industries 회장(미국), 김영호 영트레이딩 회장(미국), 진안순 Jinny Corp. 대표(미국), 오병문 (썬OTWO 대표(멕시코), 김점배 알카오스 트레이딩 대표이사(오만),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호주)이 임명됐다.

해외 협의회장은 일본 4명, 중국 5명, 아시아·태평양 7명, 미주 20명, 유럽·중동·아프리카 9명 등 총 45명이 임명됐다.

다음은 제21기 민주평통 해외지역 간부위원 명단이다.

해외 부의장(4명)

일본 부의장: 손영태 (썬ATOZ 대표이사)
아시아·태평양 부의장: 고상구 K&K 글로벌트레이딩 회장

미주 부의장: 강일한 CRESCITA APPAREL 그룹 대표회장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고광희 Korea LED 대표이사

해외 직능운영위원(7명)

김명혜 KCR Development 대표이사 (미국)
김영길 Bethel Industries 회장 (미국)
김영호 영트레이딩 회장 (미국)
진안순 Jinny Corp. 대표 (미국)
오병문 (썬OTWO 대표 (멕시코)
김점배 알카오스 트레이딩 대표이사 (오만)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 (호주)

해외 협의회장(45명)

일본(4명)

▲육종문(일본동부 협의회장) ▲이주희(일본중부 협의회장) ▲박도병(일본근기 협의회장) ▲이의명(일본서부 협의회장)

중국(5명)

▲박기락(베이징 협의회장) ▲김완택(광저우 협의회장) ▲채규전(칭다오 협의회장) ▲남정주(상하이 협의회장) ▲박영완(선양 협의회장)

아시아·태평양(7명)

▲이광일(서남아 협의회장) ▲이세호(동남아남부 협의회장) ▲황희재(동남아북부 협의회장) ▲이경진(동남아서부 협의회장) ▲신동민(베트남 협의회장) ▲서정배(호주 협의회장) ▲오창민(뉴질랜드 협의회장)

미주(20명)

▲한린다(워싱턴 협의회장) ▲박호성(뉴욕 협의회장) ▲이주향(필라델피아 협의회장) ▲한문수(보스턴 협의회장) ▲이용태(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 ▲설증혁(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 ▲김형선(휴스턴 협의회장) ▲오원성(델러스 협의회장) ▲오영록(애틀랜타 협의회장) ▲스티브 서(마이애미 협의회장) ▲박봉룡(하와이 협의회장) ▲최점균(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 ▲곽인환(덴버 협의회장) ▲김수영(시애틀 협의회장)▲김길영(시카고 협의회장) ▲유건인(토론토 협의회장)▲배문수(밴쿠버 협의회장) ▲서주일(브라질 협의회장)▲박래곤(중미 카리브 협의회장) ▲구광모(남미서부 협의회장)

유럽·중동·아프리카(9명)

▲손병권(영국 협의회장) ▲박전욱(남유럽 협의회장) ▲고창원(북유럽 협의회장) ▲권영관(중동부유럽 협의회장) ▲현봉철(중동 협의회장) ▲조홍선(아프리카 협의회장)▲박형택(모스크바 협의회장) ▲황도연(러시아동부 협의회장)▲오남현(중앙아시아 협의회장)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날 / 이성복

그날 아버지는 일곱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아홉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퐁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驛前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未收金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愛人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츠 신은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연한 나무들 위로 날아 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숨어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 짐작 치는 노인과 변통便桶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市內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가을의 초입입니다만 뒤숭숭한 요즈음입니다.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요즘 우리 사회는 비극의 날 선 칼날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느낌입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앞으로도 줄곧 이어질 테니, 당장의 걱정거리입니다. 아들 녀석이 등교를 할 때 일러야 할 말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뒤도 돌아보고 옆도 봐 버릇 해라, 이렇게요.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하니까. 칼 들고 달려드는 묻지마 살인범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은 말이죠. 참으로 끔찍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드니 더 두렵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선량한 시민 불특정 다수를 의심해야만 하는 노릇이니 두려운 마음 반 송구스러운 마음 반입니다. 늦은 밤 한적한 빌딩 숲을 산책하는 걸 즐겼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저와 아들은 심야 산책 역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야 할 게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도쿄 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방류했습니다. 설마 그땀 걸 내다 버릴까 했는데 우려를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 버리네요. 도쿄 전력은 처음 이 재난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아무리 관want고 우겨도 믿기 힘든 실정인데, 도대체 왜 그땀 걸 부어버렸을까요. 이놈의 방사능 오염수는 결국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올 게 불 보듯 뻔할 텐데요. 시간이 문제지 이게 어디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양이 아니더군요. 소량이 라도 이 사라지지 않을 죽음의 불청객은 대략 4년 뒤 적당량의 방사능 수치로 우리 해협을 뚫을거라네요. 정확히 바다만 그렇다고요. 재수 없으면 당장 서너 달 뒤라도 뭔가 찝찝한 생선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질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뭐 여권 도장 찍어가며 이 바다 저 바다를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방류 말고 다른 대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도 역시나 이해불가결한 정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건만 저는 다시 서재에 들러 '논'의 역사를 훑는 중입니다. 거실 창을 닫았는데 하늘 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는 서재에 앉아 달콤했던 기억을 애써 떠올리며 동태의 고니, 세발 낚지, 연어알 요리, 흥어삼합, 과메기, 백합, 꼬끼리 조개, 창란젓, 가자미 식혜 등에 관한 도감을 훑겠지요. 그리운 마음으로."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3 сентября -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Днем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45 год).

78 лет назад произошло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показало всему миру: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существует. Наши предки нанесли решающее поражение последнему союзнику нац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и –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Поставили победную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Вернул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ее исконные земли – южную ча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Это событие привело к созд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ее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Долгое врем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Победа» отмечалась как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вот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новь восстановлена. Недавн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который вернул имя дорогому для всех нас празднику. И сегодня мы отдаем дань памяти тем, кто пал в бо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бращаемся к ветеранам, которые победили в войне, а после нее строили на островах города и села, своими руками закладывали основу сегодняшне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Как отцы и деды, мы трудимся,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ж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счаст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и. Свято храним память о тех, кто освободил нашу родную землю.

С праздником,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елаю вам счастья и новых успехов на благо Родины! С Днем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45 год)!

В.И.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В Холмс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26 августа в Холмс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Фестиваль стартовал в Углегорске, затем прошел в Аниве и завершился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ом в Холмске.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мэр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вице-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ергей Ли,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емлячество Байкал» Ольга Цирендоржиева, а также Александр Тянь — председатель холм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стал уже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для Холмска,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округ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 Его цель — сплотить людей раз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ть единой семьей. Благодарю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емлячество Байкал», Александра Тяня и всех, кто каждый год дарит нам этот праздник. Всего самого наилучшего.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были вручены мэру Дмитрию Любчинову, Александру Тяню, Ким Пок Сун, Ким Ден Ок, Лим Дык Син, Андрею Нам и Ли Бок Сун. Кроме того,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 Холм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Елене Кудряшевой и Ри Ен Сон.

Дл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юда пян-се и лучимге,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али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со сцены звуч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е песни и исполнялись танцы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бурят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Минимал»,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риранг», солистка центра Юлия Че, свои номера показали коллектив ансамбл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



манг», народный хор «Русская песня», Анастасия Серегина и другие артисты.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ООСК**

Молодежный диалог: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Россия — Узбекистан

29 августа, Ташкент – ИА РУСКОР

XI Молодежный Диалог,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Форумом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шел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с 7 по 13 августа. Его тема в этом году – «Реализация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еж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ести вузов – СПбГУ, МГЛУ, РУДН, НИУ ВШЭ, УрФУ и САФУ.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Молодежный Диалог представляют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Корё, Сонгюнган, Ёнсе, Анян, Чунбук, города Ульсана, Хангён, а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приветствии соруководител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РПК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имени Патриса Лумумбы Владимира Филиппова отмечено, что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состоялся впервые за три года и объединил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л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РПК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молодёж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KYWA) Ли Чинвон.

От лиц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депутат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Эмма Аслонова. Успехов в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жел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Валерия Занина и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

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Пэк Сынхи.

Руководитель филиала СПбГУ в Ташкенте Махмуджон Зиядуллаев предложил сделать практику привлечения к Молодежному Диалогу студен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постоянной.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мероприятий и по-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обсуждаются на площадке.

Во время первой дискуссии участники определили темы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качестве тем для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частники выбрали «Творчество и IT», «Творчество и бизнес», «Творчество,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и образование», «Творчество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абитуриентами Узбекиста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ашкенте,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орц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участ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та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ак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ашкенте, Молодежный центр «Shinsedae»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Студен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во главе с Чарос Рустамовой познакомил делегацию с программами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Shinsedae» Даниил Тё рассказал о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а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фестиваля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ации. С лекцией про молодеж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твор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художеств и дизайна имени Камолиддина Бехзода выступила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Станковая живопись» Умида Хамраева.

В Самарканд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обсудили способы укреп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молодежи в эпоху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а также способы укрепле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и жизненных навыков молодежи,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и местных сообществ в их укреплении.

В Бухаре участники Диалога встретились со студент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бсуд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возможна реализация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или работу над собствен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Конечным пунктом, где участники провели презентацию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мероприятия Диалога стал Наво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СПбГ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рыла границы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ня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который был введен 3 года 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в целях недопу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27 августа штаб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эпидемий объяви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за границей, разрешен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Штаб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уровень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с учетом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с пандемией во всем мире». Между тем, все вернувшиеся из-за границы будут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надзором медицинским наблюдением в карантинных отделениях»,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Этот шаг был предприня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озобновила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крыла границы в январе 2020 года, а в мае 2022 года ввела «чрезвычайные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объявил о победе над вирусом COVID-19, после чего возобновились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грузовые перевозки.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гласила делегации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а военный парад.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отправились в Казахстан на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Военные корабли РК отправились в кругосветный поход

28 августа группа кораблей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РК отправилась в кругосветный поход, — сообщили в штабе ВМС. На борту учебного корабля «Хансандо» 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корабля «Хвачхон» порядка пятисот офицеров и военных моряков, проходящих срочную службу, а также 151 выпускник Военно-м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РК. За 141 день корабли пройдут 55.600 километров, посетят 14 портов в 13 странах. Моряки вернутся на родину 15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ервый кругосветный поход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в 1954 году для адаптации выпускников Военно-м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к кораблям и приобрет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вы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еров ВМС.

РК увеличит квоту на выдачу виз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величит квоту на выдачу виз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был обнародован 24 августа. Нынешня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компаниям нанимать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 визой E-9 в случае нехватки сотрудников из числа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фермерам позволят нанимать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цев, чем прежде. Общая квота на выдачу рабочих виз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увеличена до 120 тысяч, что на 10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разрешить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Сейчас работник с визой E-9 через 4 года 10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ъезда в РК должен вы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чего может вернуться еще на 4 года 10 месяцев. Нова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ит ему находиться в стране более 10 лет. Помимо этого, власти расширят список отраслей, в которых допускается наем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ое право получают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в регионах, в которых сокращается населе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и наземные службы аэропортов. Аналогичные меры будут рассмотрены в отношении гостиничного и ресторанного бизнеса.

В стол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готовят местн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чиная с 28 августа, в стол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готовят местн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По сообщению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меню столовой — сырая рыба, жареная скумбрия, тушеная рыба-сабля, жареные морские ушки, пибимпап с морским ананасом и рис с заливкой из жареного угря. «Приготовление блюд из местны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стол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побудить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без опасений потреблять их после начала сброса очищенной радиоактив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бавив, что такие блюда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в столовой не менее двух раз в месяц.

Песня Чон Гука Seven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в чарте Spotify

Дебютная со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Чон Гука из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Seven стала третьей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песней лета на глобальной потоковой платформе Spotify.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дюсерском агентстве Big Hit Music, Чон Гук достиг этого результата через 40 дней после выхода Seven 14 июля. Песня Seven оставалась на вершине глобального чарта Weekly Top Songs Spotify шесть недель подряд, а на вершине другого глобального чарта Daily Top Songs — более 40 дней. Чон Гук — шестой участник группы BTS, дебютировавший в качестве солиста, после J-Норе, Чина, RM, Чи Мина и Suga.

(RKI)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лекция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3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лекция «Значе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пираясь на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расскажет о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а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Дата и время: 3 сентября 13:00

Мес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29

Кому мешают ушедшие геро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 корейских СМИ появилась неприятная новость, которая касается и нас с вами, корейцев с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делаем небольшой экскурс в прошлое. В 2018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бюсты геро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 и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25 августа 2023г. Корейская 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объявила о рассмотрении вопроса о снятии и переносе бюст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 Хон Бом До, Ким Чва Чжина, Джи Чон Чхона, Ли Бом Сока и основателя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Шинхын Ли Хве Ёна. А взамен планируют установить бюст Бэк Сон Ёпа, солдата маньчжур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чувствующие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ыразили решительный протест, заявив: «Это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акция, которая отрицает историческую легитимность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скольку Корейская 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выступила за снос бюст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пус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одняло вопрос о том, следует ли оставлять бюст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еред зда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Вспомнили 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шлом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оявились голоса, считающие, что этот факт является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его бюст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идимо они забыли о том, что ещё 1962 году,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наза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градило посмертно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м Орде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А в 2018 году глав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е (класса 214) ВМФ Кореи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имя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сего 2 года назад, 15 августа 2021 г. останк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были перевезены в Корею с высочайшими почестями.

Сейчас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оит перед дилеммой. Помимо бюста Хон Бом До перед министерством установлены бюсты ещё пяти героев, в том числе Ан Чжун Гына, Юн Бон Гиля, Ли Бон Чхана, Кан У Гю и Пак Сын Хвана. Эти бюсты были перенесены на нынешнее место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в бывшее зд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перееха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шение о сносе бюстов вызвало гнев не только организаций и мемориальных общест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о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целом.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приостановил действ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пока полностью не отменил решение о сносе бюстов.

Что значат все эти действия? Попытка переписать историю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Евгения Цха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анная публикация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 основе материалов корейских СМИ)

Лид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ппозиции заявил о начале бессрочной голодовки протеста

Лидер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обвин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в разрушении демократии, предательст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заявив, что вынужден прибегнуть к "последнему средству 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 бессрочной голодовке протеста, которая стартовала немедленно.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назвала это попыткой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ра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ведет прокуратура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тика.

В четверг 31 августа лидер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ове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котора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годовщине хождения политика на посту главы партии. Безусловно, эксперты и журналисты ожидали жесткой критики в адре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о вряд ли кто-то предполагал, что Ли Чжэ Мён решится на достаточно рискованный шаг типа голодовк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разрушает демократию,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порядок, объявив войну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же граждан", -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парно заявил Ли Чжэ Мён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обещав, чт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анет "первым, когда в Корею начн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демократии и суд над бесчеловечным режимом".

Политик потребовал от правя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нести извинения народу,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подать в суд на Японию за сброс радиоактив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и произвести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реформы госуправления 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Ли при этом признал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также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и свою личную за то, что не смогли вовремя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катыва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оторое был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о как

"предательство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С учетом всего сказанного Ли Чжэ Мён отметил, что у него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последний способ 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 голодовка. "Я готов биться до конца,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разрушение демократии. В этой связи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еднего способа борьбы объявляю о начале бессрочной голодовки", - заявил он.

Он также обвинил прокуратуру в ег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еследовании. Ли Чжэ Мён подозревается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по нескольким статьям, включая коррупцию,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и направление средст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о время нахождения на предыдущи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ост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оит учитывать, что Ли является пока самым главным потенциальным конкурентом для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на буду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и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народе. В ходе выборов лидера страны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с разрывом менее чем в один процент уступил нынешнему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ожидаемо раскритиковали действия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назвав это "агонией" и попыткой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расследования его нарушений закона.

Эксперты же прогнозируют теперь дальнейшую интенсификацию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в Южной Корею, указывая, что Ли Чжэ Мён пошел на достаточно рискованный шаг. Очевидно, что из-за его требова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не будет менять свой курс и извиняться. В этой связи Ли придется со временем искать серьезный повод, чтобы без потери лица прекратить голодовку, которая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может начать угрожать его здоровью, а затем и жизн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На 60 вопросов отв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ямом эфире

30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прямая линия главы региона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За два час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робно осветил шесть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Всего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700 обращений. Их принимал и колл-центр, и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Все они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а их авторы получают ответ в течении 10 дней.

Больше всего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олновали такие темы, как начало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ремонт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переселение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опросов затронул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 качество питьевой воды, газификацию, старт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 прямом эфи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что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5 школ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здается 1335 мест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станут уделять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ребят – со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В 104 школах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учиться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ю и управл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Жителей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радовала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в селе Новом осенью сдадут семь тре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дняли тему нехватки билетов на самолеты и поезда.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помогает новый сервис – лист ожидания. Теперь он охватил не только воздушный, но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у жителей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ловить лосось ставными сетями. Добывать горбуш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тавных сетей можно будет в районе села Москальво в заливе Байкал. Необходимые изменения, как и поправки в отношени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бассейна, включены в проект приказа Минсельхоза Росси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рыболовств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заверша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введу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ГРС «Леонидово», «Долинск» и «Макаров». В конце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газифицирована, в том числ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более 1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Прямая линия –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лучить срез проблем, волнующих людей, напитаться и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ую погруженность в детали и доскональное знание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Это ценные качества для люб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ак человек, плечом к плечу проработавший с ним почти пять лет, я знаю, что к так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ям он относи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серьезно. Губернатор будет требовать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решения буквально каждого во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ишел к нем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е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тметим, вопросы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по телефону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с 20 августа. За это время поступило свыше 480 обращений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Еще свыше 250 вопросов пришло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а в прямом эфире.

7 новых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дадут этой осенью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Современные одноэтажные дома на три квартиры возводят в селе Нов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х бесплатн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дадут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 переселенцам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Кроме тог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жилья еще в одн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в Восточном.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Вопрос о планах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жителей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овременные дома был задан губернатору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 Будет ли продолжена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елах нашег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ее рамк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жилых домов для сельчан? –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верил, что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в районе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в конце 2026 год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реализуем уже втор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Запустили ее в 2021 году, одни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В ее рамках должны расселить более 7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гд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33 тысяч человек. Мы идем хорошими темпами. Новое жилье уже получили почти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сселено свыше 200 тысяч квартир,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вершить программ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2026 года. При этом в некотор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работы будут закончены даже раньше срока. Например, Ани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ланирует сделать это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ньш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завершила предыдущ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длиться до 2025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отмечен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обре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1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первой программы в 2019-2020 годах удалось расселить 4 179 человек.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уже более 19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еще 2,5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Новые поликлиники в Холмске и Макарове откроются в 2025 году

В Холмске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лючить контракт на возве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ъекта в Макарове. Об этом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жителя Холмска, поступивший из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Холмске строится в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бульвара. Это будет 7-этажное здание. Ввод планируется на 2025 год. Там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ликлиниче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 взрослое и детское отделения, жен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лаборатория.

А жители Макаров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на каком этапе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их городе.

– Понимаю беспокойство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м давно обещали новую поликлинику. Сейчас вопрос решен окончательно.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лючить контрак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 в 2025 году поликлин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В новом учреждении можно будет сдать анализы, пройти медосмотр,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 процедуры дневного стационар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напомнили, что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ак им теперь добираться к врачу в соседний район после объединения их ЦРБ с медучреждением Тымовского.

– Нас уверяли, чт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бус и жител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е будут испытывать каких-либо неудобств. Но в итоге мне сказали добир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А мне 70 лет. Автобусы из нашего города в Тымовское отправляются в 4:15 и 7:00 часов. Билетов не было. Такси в одну сторону 2200 руб. Как быть? – высказался в соцсетях житель.

– Мы намеренно усилили одну больницу. Сделали в Тымовском соврем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который обслуживает близлежащие районы. Однако, как я и говорил на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это не должно привести к сокращ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Если же нужен узкий специалист 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есть в Тымовском, но попа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е получается, гражданин, безусловно, может обратиться. Мы точно поможем, в случае крайне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транспорт. Мы внедряем принцип человекоцентричности в медицину, и каждый пациент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ступил вопрос о нехватке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Приемы в обещанные 7 дней не выдерживаются. В августе вообще не смог попасть к ортопеду в городскую травматологию. Невозможно попасть к эндокринологу. Еще вопрос. Наш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ы сравнивали с Кореей, а я не могу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ы улучшилась, но еще не достигла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офильному бло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цели. Япония и Корея нужны как некий понятный ориентир. Минздрав и врачи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куда двигаться, к чему должны прийти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а Кузнецова,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в середине года произошел перелом. Был дефицит кадров,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каждый месяц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иехало 26 человек. К концу года ожидается еще около 60.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чали работу мобильные бригады. Сформированы команд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районов, где врачеб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нормативами или в период отпусков. Проводятся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ет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специально обученные люди помогают жителям получить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Записывают их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и медицинские анализы, напоминают о дате посещ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или больницы. Они также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м вопросов инвалидности, оказыва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пациентов поступают позитивные отзывы.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брать в число проводников 750 человек. Они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узнают,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а медицинская система. 563 специалиста уже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месте с те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роводит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эндокринными 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ходе таких встреч 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точечные, так и системные меры, чтобы оказ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поможет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подписани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Театр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От лица властей региона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ведущий театральный вуз страны наладит обуч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педагог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а также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начнет пров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ыездные спектакли на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театральный вуз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ют ряд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Школа – театр – вуз»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объявили набор на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еатр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медиакоммуникации». В рамках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едаго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имеют диплом колледжа, и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могут повысить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казал, что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должны приезжать лучшие театры, выставки, концерты, должны быть луч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Поэтом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мы выполняем поруче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а с другой, – приехали на удивительный остров, где мы уже бывали в гастролях, – рассказал ректор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Евгений Князев. – Я сам семь лет назад был в Чехов-центре на аттестации актеров. И за эти го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менился до неузнаваемости. Видя, какими темпами развивается регион, я уверен, что нам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подвластно создать еще одну яркую творческую точку на карте Сахалина.

На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оступило 28 заявлений, обучение стартует уже с 1 сентября. Час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одулей будут чита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часть – ведущие педагоги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программ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акие дисциплины, как основы акте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режиссерские и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сновы школь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репертуар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нескольких програм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островных педагогов.

– Мы начинаем наш большой проект с учетом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Школьные театры». Сахалинские педагог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высить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но и получить бесценные знания о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одном из лучших театр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врио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Барбарич. – Помимо этого, мы создаем хорошую платформу для ребят, которые захотят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театральным искусством и дотянуться до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 покидая его родной регион. А еще тако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наполнить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о и вс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театр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новыми площадками и даже студенческим театром.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вуз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школьников от ведущих педагогов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рганизац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ездного спектакля «Медный всадник», участие московских педагогов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ов жюр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тапов фестиваля «Школьная классика в 2023-2024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между театральным вузо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дут переговоры о создании филиала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Считаю, что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 выдающийся театр без намека на провинциальность. В Чехов-центре прекрасные актеры, к нам приглашают именитых режиссеров, которые ставят спектакли в ведущих театрах страны. Это чувствует и зритель, поэтому билеты раскуплены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перед.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мы запустим вторую сцену Чехов-центра в здании бывшего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Щукин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 важный шаг к тому, чтобы сделать театральную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е еще более насыщенной и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театр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野 "무식한 국방부, 홍범도 제거로 역사쿠데타... 장관 파면하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국방부 청사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0일 독립운동가 홍상 철거를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계획에 대해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을 없애 친일파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1919~1922년 빨치산으로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한 게 문제라고 한다"며 "그때 북한 김일성 나이가 몇 살인데 홍범도·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일본군과 맞선 것을 김일성식 빨치산과 연계시키느냐"고 반문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이다.

그는 "훈신의 힘을 다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김일성식 빨치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무식한 국방부의 무도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공산당에 가입해 문제가 된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점에서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역사쿠데타"라고 일갈했다.

그는 "홍 장군이 1922년 소련 땅에서 열린 국민족대회에 참석할 때 쓴 입국 서류를 보면 '직업은 의병, 목적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다"며 "나



처벌 |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씩저화

발언하는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30 yatoya@yna.co.kr

라의 독립을 위해 소련이 도와준다고 하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영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돌았나"라며 "친일파 중심의 군인들이 홍범도 장군 홍상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다가 억눌린 감정이 적개심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회견에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독립운동가후손 청년회, 시민모임 독립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생방송으로 60개의 질의에 답해

(1면의 계속)

항공권과 교통 이용권 구매시 부족 문제는 항공편이나 기타 교통편도 '대기자 명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 오하의 주민들은 곧 그물망으로 직접 연어를 잡을 수 있다고 전해져 바이칼만의 모스크바 마을 구역에서는 그물망을 이용해 송어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극동 행정자치지역들과 관련한 조업 구역 개정, 필수 변경이 러시아 농산업부의 '어업 규정 변경 시행에 대해' 법령 기획에 포함되어 있다.

향후 사할린주의 가스화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올 연말까지 레오니도보, 돌린스크, 마카로브에 가스화 시설이 완공돼 가동하게 된다. 2025년말까지는 사할린주와 쿠릴열도의 가스화 공사를 해야 한다. 가스화 작업의 총 투자 규모는 1000억 루블리로 이는 가스프롬사와 공동으로 가스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통 연결' 문의를 주민들의 우려와 문제를 파악해 지역의 지도자가 향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어지는 질의들에 진지하게 답하며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8월20일부터 전화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문의 사항은 480건 이상이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250개의 문의가 더 접수됐다.

국내 및 극동의 우수 연극을 사할린 극장들에서 보게 된다

러시아 국민배우이자 국민극장의 예술 감독인 예브게니 미로노브와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내년 6월에는 대규모 연극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2주간의 연극축제로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은 극동 극장의 작품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대표적 연극단을 초청해 상연할 계획이다. 축제에서 관객

들에게 상연할 우수 연극작품들은 전문가위원회가 선정한다.

대규모 프로그램에는 10개 작품들로 초연 및 히트 연극 작품들이다.

연극축제는 체호브 센터와 콤포몰레츠 영화관 소형 무대, 인형극장, 사할린 국립대 강당 등 여러 곳에서 상연하며, 무대가 있는 소공원과 시공원에서 거리 공연을 할 계획이다.

사할린행 페리호 <알렉산드르 제예브>

조만간 최신형 선박이 와니노 - 흠스크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다.

최신형 선박 '알렉산드르 제예브'는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조선소에서 사할린 지역을 위해 특별히 건조되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와실리 오세프코브' 선박이 건조 중인 가운데 내년엔 완공할 예정이다.

"연간 와니노 - 흠스크 구간 페리호의 운항으로 화물 1백만 톤이 운반되고 있다. 화물은 주로 식료품, 건축자재, 생활용품, 석유제품,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물들이다. 파

라서 최신화 설비된 선박은 사할린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빙하 대처 등급이 높아 '알렉산드르 제예브'선박은 일년 내내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제예브' 선박은 철도 차량 28량과 화물차 12대, 승객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용적량은 예전의 선박보다 1.5 배나 된다.

법무부, 올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이 중 5,476명 자진출국 불법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 7월 31일까지 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모두 7,424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

국인 등은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는 모두 1,29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2023년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 그리고 한류와 한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글,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모분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담은 체험담
작품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A4 3장~10장) 내외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5분~10분 내외
작품접수	2023년 5월 8일 (월) ~ 9월 22일 (금)
수상작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
시상내역	<p>성인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9명 : 상금 30만원 및 상패 <p>청소년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명 : 상금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명 : 상금 30만원 및 상패 - 장려상 6명 : 상금 20만원 및 상패 <p>지도교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원 2명 :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시상일정 및 장소	10월 13일 수상자 발표와 함께 안내
접수처	<p>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KBS 한민족방송 <2023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우) 07232</p> <p>E-mail : 972khz@kbs.co.kr</p> <p>홈페이지 : http://program.kbs.co.kr/scr/radio/memoir</p>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네벨스코이 제독은 러시아의 지리적 영역을 확대시키고 프리아무르와 프리모리 지역의 영역도 더욱 넓혔다. 그는 사할린은 섬이며, 아무르의 하구가 해양 운항이 가능한 곳임을 증명했다. 네벨스코이 탄생 210주년 기념 전시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에 맞추어 개최된다. 전시회에서는 사할린 미술 박물관과 코르사코프 지역 향토역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회화, 그래픽, 조형물을 비롯해 류보위 바르샤프스카야 러시아 화가협회 민속 장인의 개인 소장품 중 19세기 말 귀족 정장이 전시된다.

전시회를 찾는 방문객들은 네벨스코이 전람회를 주제로 한 모스크바 화가 블라디미르 블라디킨의 일련의 회화작들을 볼 수 있다. 이들 작품 중 하나에서는 항해자가 바다를 항해하는 '바이칼' 돛단배 그림이 있다. <행복의 만> 전시회는 9월 7일(목)부터 10월 25일(수)까지 워그잘나야 거리, 5A 전시장에서 열리며, 개회식은 9월 6일(수) 17시에 시작되고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전화는 (4242) 72-36-43)로.

Выставка к 210-летию адмирала Невельского откро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Залив счастья», посвященный 21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усского мореплавателя Геннадия Невельского, откро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кспозиция начнет работу в зале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с 6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 географию России и прибавил к ее просторам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урья и Приморья. Он доказал, что Сахалин — это остров, а устье Амура доступно для морск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Выставка в честь 210-летия со дня его рождения приурочена к Дню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не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а, скульптура из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дворянский костюм конца XIX века из частной коллекции народного мастера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Любови Варшавской.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и увидят серию живописных работ, посвященную экспедиции Невельск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ыкина. На одной из картин изображен транспорт «Байкал», на котором мореплаватель совершал путешествие.

Выставка «Залив счасть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7 сентября по 25 октябр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на улице Вокзальной, 5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6 сентября в 17:00, вход на нее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2) 72-36-43.

한 시간에 1000회 스쿼트: 제5회 스쿼트 마라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연례 제5회 스쿼트 마라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 단지 중간역에서 열렸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행사에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1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3초에 1회 반복 간격으로 1시간에 1200개의 스쿼트를 해야 했다.

행사에는 사전 등록이나 신청은 필요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스쿼트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할린 주민들은 대부분이 사회 운동 강사이자 역도 종목 러시아 스포츠 선수인 안드레이 미로시니코브가 조직한 '아나톨리츠의 건강' 무료 수업의 수강생들이다.

"스쿼트 마라톤은 2019년부터 시작해 행사를 진행동안 참가자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마라톤을 하기도 한다. 첫째에는 한 시간에 360회를 스쿼트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1200회 스쿼트에 도전하고, 내년에는 1,440회 스쿼트에 도전한다."고 행사 주최자인 안드레이 '아나

톨리츠' 미로시니코브가 말했다. 안드레이 미로시니코브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무료 체력 단련에 건강한 생활방식을 이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수업은 1년 내내 진행된다.

체력 단련 진행 및 수업, 기타 행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식 텔레그램 - 방송 '아나톨리츠의 건강' 기획@anatolichte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Более 1000 раз за час: пятый марафон приседаний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ятый ежегодный марафон приседаний прошел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100 любителей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м предстояло в течение часа совершить 1200 приседаний — с интервалом «одно повторение в три секунды».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могли ст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 никак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нет. Многие из сахалинцев, присоединившиеся к марафону — участники бесплатных занятий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ренером-общественником, мастером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гиревому двоеборью Андреем Мирошниковым.

«Мы проводим марафон приседаний с 2019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гресс участников очевиден. Например, так же мы проводим марафон отжиманий. В первый год за час мы смогли присесть 360 раз, а в этом году — уже 1200.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мы ставим для себя цель 1440», — поделился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Андрей «Анатолич» Мирошников.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чать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Андрей Мирошников приглашает на ежедневные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круглый год.

Всю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ведении и переносе занятий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найти в официальном Telegram-канале проекта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anatolichteam.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